
	보도자료	배포일자	07.18.(목)	매수	2매	
		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		
	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	실 장	장 진 성		054-530-3042	
		담 당	지 중 훈		054-530-3027	

상주적십자병원, '인도주의 스타트업' 사업 추진

-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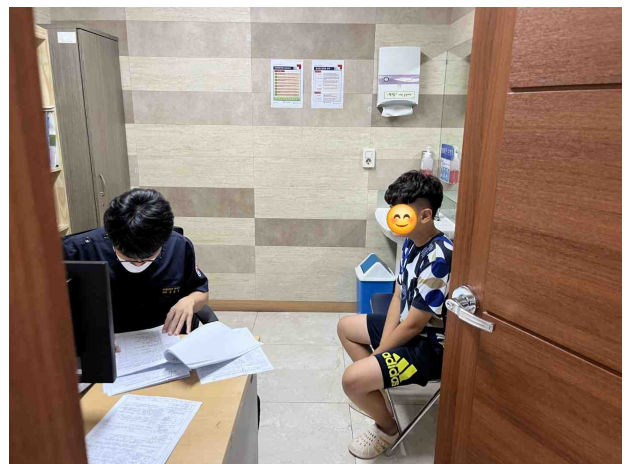
[사진설명] 시력 검사, 키·몸무게 측정



[사진설명] 채혈



[사진설명] 상담 기다리며 기념촬영



[사진설명] 가정의학과장님 상담

-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오늘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의료비, 학생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‘인도주의 스타트업’ 사업을 시작하였다.

- 인도주의 스타트업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행사인 ‘2023 레드크로스갈라’ 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이며, 지난해 ‘돌봄과 치유, 그리고 1년’ 을 주제로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상주적십자병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한다.

- 사업의 첫 출발은 오늘부터 19.(금)까지 3일간 18명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, 기존 학생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다양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학생 맞춤형 예방접종을 지원한다. 또한 제도권 내 학생들은 2년 주기로 학생건강검진을 받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3년 주기로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.

- 김혁수 병원장은 “초고령화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.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병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.” 고 말했다.